

광주 청소년 미혼모 등 매년 500여명 늘어

보호시설 입소 꺼리고 지원 ‘사각’

갈수록 연령 낮아져... 생활비·교육비 등 확대 시급

청소년의 탈산과 혼전 임신의 증가로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시설이 극소수인데다, 입소후에도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 시설이용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1일 광주시와 지역 미혼모 시설 관계자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만 매년 500여명의 미혼모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연령대가 낮아져 10대 미혼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청소년 미혼모도 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광주 지역 미혼모 시설에는 총 243명이 입소했으며 4월말 현재 51명이 생활하고 있다.

미혼모 시설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18세 미만 청소년 미혼모의 입소 상담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심지어 16살 중학생이 상담을 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청소년 미혼모가 늘고 있음에도 생활력이 있는 직장인 ‘싱글맘’과 달리, 이들이 시설 입소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함에도 실질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혼모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의 관계자는 “어린 미혼모들이 시설 생활 규칙을 준수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데다, 시설에서도 이들이 맘놓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금 등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지자체의 도움을 받거나 머물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인가시설 외에 종교단체 등 비인가시설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이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하더라도 학업이나 아이 양육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생활비 등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다니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지원금 등이 여유처 않아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해야하는 상황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맘 편한 카드’ 등을 발급해 지원하고 있으며 미혼모 지원기관에 한부모 가정으로 신청하면 육아비,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고작이다.

또 모든 미혼모에게 월 양육비 10만원, 근로 능력이 없는 25세 미만엔 15만원을 지원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여유처 않아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해야하는 상황이 된다”고 덧붙였다.

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알려지지 않은 많은 청소년 미혼모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아이를 낳고,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미혼모 시설 ‘우리집’ 강춘심 원장은 “광주 지역의 낙후된 시설도 문제지만 출산, 유아용품 지원 외에 입소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나 교육비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장애인 학생 법정체험

을 초청했다.

1일 오전 광주지법을 방문한 합평 영화학교 장애인 학생들이 법정체험을 하고 있다. 광주지법은 이날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자발찌 부착 규정 어기면 강력 처벌

광주지법, 분실후 거주지 이탈 징역 4월 법정구속

법원과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 발찌) 착용 의무를 어긴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성범죄 전자감시 재범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사회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지난 30일 전자 발찌를 분실한 뒤 광주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거주지역을 벗어난 이

모(4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4월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전자 발찌 부착 명령 2년형이 확정된 뒤 같은 해 8월13일 전자 발찌의 부품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뒤 장흥 등 관내를 벗어난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후 휴대용 추적장치는 이동 시 반드시 충전해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고 수차례 이를 위반,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청되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

의 형은 다소 가벼워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이씨는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한 바 있다.

또 광주보호관찰소는 최근 전자 발찌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최초(47)씨를 특정 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광주보호관찰소가 관리중인 전자 발찌 부착 대상자는 살인,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등의 범죄를 저지른 26명이며, 현재 교도소에 복역중인 43명은 출소 후 전자 발찌를 부착해야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물에 뛰어들 친구 구하려다 ...

영광서 20대 3명 익사

여자 문제로 싸우던 20대 3명이 한꺼번에 저수지에 빠져 숨졌다.

1일 오전 6시22분께 영광군 불갑면 방마리 불갑저수지에 문모(21)·윤모(21)·전모(21)씨 등 3명이 빠진 것을 친구 서모(여·21)씨가 119 등에 신고했다.

친구 사이인 문씨 등은 이날 오전 8시께 출동한 119구조대에 인양돼 인근 병원에 안치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들이 이날 새벽 영광읍내에서 술을 마시고 6km가량 떨어진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을 찾았다가 문씨의 여자친구인 서씨를 두고 싸우다가 차례로 저수지에 뛰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문씨가 울고있던 자신의 여자친구인 서씨를 윤씨가 달래주는 것을 보고 화가나 저수지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물에 빠진 문씨를 구하기 위해 윤씨와 전씨 등이 잇따라 물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씨도 이들을 구하려 뛰어들었으나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자 당황해 가까스로 나와 목숨을 건졌다. 사고가 난 저수지는 독 경사가 가파르며 다 수심이 갑자기 깊어져 사망자들이 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흥기 난동 中 선원 2명 영장

목포해경

목포해양경찰은 1일 영해침범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흥기를 휘둘러 중경상을 입힌<본보 5월 1일자 1·6면> 중국선적 227t급 어획물운반선 절목어운호 선장 왕모(36)씨와 항해사 왕모(29)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또 제한조건 위반(조업일지 허위 기재) 혐의로 담보금 1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왕씨 등은 전날 새벽 2시30분께 신

안군 흑산면 흥도 북서방 50km 해상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의 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속에 나선 어업감독 공무원 김모(44)씨 등 4명이 중국선원들이 휘두른 해머와 칼 등에 맞아 상처를 입고, 화모(32)씨는 바다로 추락했으나 다행히 구조됐다. 해경은 나머지 중국선원 7명은 선장의 지시로 선실문을 잠근채 폭력에 가담하지 않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목포항에 억류 중인 여선으로 석방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원전 납품비리 수사 한수원 본사로 확대

영광원전 등의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지역 원전 구매부서, 납품업체 임직원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납품업체와 관련된 전국의 각 지역 원전 구매부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한수원 본사로 이동한 인사, 납품업체들과 연관된 업무를 보는 본사 구매부서 인사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한수원 본사 구매부서의 한 간부가 울산의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인 납품업체와 업무를 진행한 것처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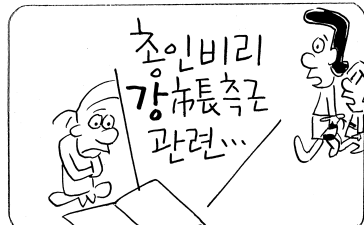
본사 간부도 많은 업체와 부품 구매 업무를 하고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원전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4명의 지역 원전 간부와 로비스트 등이 주고받은 뇌물성 금액이 최대 20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 돈의 흐름을 계속 캐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돈이 상급자나 한수원 본사까지 건네졌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말할 수 없지만 광범위하게 수사중”이라며 “수사대상인 납품업체의 숫자도 현재 10여곳에서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진도대교 부근 바다서

수감 채워진 시신

진도의 한 해상에서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진도대교 인근 진도습지 신통공원 10m 앞 해상에 남자 시신 1구가 떠 있는 것을 주민 박모(80)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3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시신은 170cm 가량의 건장한 체격에 하의는 검정색 등산복, 상의는 검정색 바타의 녹색 등산복, 신발은 단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김경민기자 kki@

“말 안듣는다” 여자장이 종업원 머리채



소 여사장이 술에 취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40대 여종업원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경찰서행.

○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주모(여·52)씨는 지난 30일 밤 9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강모(여·40)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가 폭력 등의 혐의로 입건.

○주씨는 경찰에서 “강씨에게 손님 방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른 시간부터 만취한 강씨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에 실수했다”며 후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삼일로) 02-2276-06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02-733-0220 송파점(세종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안양점(구 시민회관) 03-2421-2988 부평점(부평역) 03-2617-5110 수원점(남로) 03-1246-5110 의정부점(의정부역) 03-1821-6655 안양점(역삼소풍2001 아울렛)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03-1658-5110 용인점(용인내거리) 03-1336-1090 오산점(오산인문) 2층) 03-1376-4183 부천점(부천역) 03-2329-4400 남양주점(한신 호텔) 070-8829-9903 부산 서면점(서면로터리) 051-818-8800 서면점 818-0016 남포동점(부평구청) 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로터리) 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055-291-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055-745-9870 대구 동원점(동원네거리) 053-425-4440 삼척점(삼척네거리) 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 053-425-7575 경북 포항점(북로터리) 054-244-5110 안동점(구 인동로) 054-659-2248 광주 광주점(구 도청)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062-651-4477 전남 순천점(순천사거리 지하상가) 061-752-8845 전북 전주점(전북로터리) 063-622-5728 호남점(구 시청) 063-446-0196 익산점(익산시청) 063-638-5000 남원점(남원시청) 063-632-2626 대전 대덕점(도청) 042-254-5110 대전점(충청로터리)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042-225-6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041-553-2888 광주점(광주문사거리) 041-852-5110 충북 청주점(한빛로) 043-254-5110 대전점(충청로터리) 043-632-1177-8 충주점(충주로터리) 043-632-1414 강원점(원주로터리) 033-647-0588 춘천점(춘천로터리) 033-253-5110 제주 제주점(제주로터리) 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품질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기
ISO 13485인증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의료기기
제조업체

상당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 광주 구도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